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이주문학 연구*

— 이주·정착과정의 시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

김 정 훈(한림대)·정 덕 준(한림대)

<목 차>

- | | |
|-----------------------|--------------|
| 1. 서 언 | 4. 정착의지의 형상화 |
| 2. 항일투쟁의식의 전경화 | 5. 결 어 |
| 3. 실향의식의 내면화 - 향수와 방랑 | |

1. 서 언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문학을 ‘이주·정착’의 문학으로 범주화, 이 시기 만주에서 발표된 시 작품의 특성을 고찰하여 그 문학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나아가 재만 조선인의 민족적 정체성이 이주·정착의 단계에 따라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 이 시기 재만 시문학의 민족문학적 의의를 밝혀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문학은 무엇보다도 현재 중국에서 소수민족의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 중국조선족의 초기 이주·정착에 대한 기록에 다름 아니다. 이 시기 재만 조선인 문학은 간도 이주 초기의 간고한 정착 과정 뿐 아니라, 위(僞)만주국 건국 이후 일제가 내세운 ‘오족 협화(五族協和)’ 정책,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일어난 이주 조선인 내부의 갈등, 나아가 공산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 -A00056).

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이념 갈등 등을 꺾진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문학을 온당하게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주·정착의 역사라는 맥락에서의 접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재만 조선인 문학에 대한 기존 연구는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의 해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까지의 연구는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문학이 당대 한국문학과 밀접한 상호 관련 아래 전개되었고, 그래서 그 자체로 한국문학의 범주에 속한다는 입장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하던 특정한 작가나 시인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하여 생활 근거를 잠시 만주로 옮겨 창작 활동을 지속했던 것으로 보고, 이들의 창작 활동은 국내에서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이 시기 재만 조선인 시문학에 대한 연구가 당시 자료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는 기존 남한의 문학사에서 주목해 온 시인들과 그들의 작품을 주요 관심 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진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따라서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시문학은 동시대 국내 작가와 시인이 산출한 망명문학¹⁾이라는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30년대 만주, 길림·요녕·흑룡강 등 중국 동북 3성은 조선과 일본 그리고 중국, 기타 서구의 여러 나라가 정치·사회적으로 서로 얽혀 있던 복합적 공간으로, 광복 이전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결절에 해당하는 공간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시기 재만 조선인 문학 또한 중국의 항일문학을 비롯하여, (구)소련의 혁명문학, 한반도의 사회주의 문학의 성과들을 활발하게 수용하는 한편, ‘만주’라는 지정학적 특성과 ‘위 만주국’이라는 특수

1) 여기서 말하는 ‘망명문학’의 개념은 오양호의 의견을 따른다. 오양호는 『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문학연구』(문예출판사, 1996.1)에서 1920년대에서부터 1945년 광복에 이르는 ‘간도·만주·연변의 한국문학을 망명문학과 이민문학으로 대별하고 있다. 오양호는 망명문학을 “국권회복을 전제로 한 문학”, 이민문학을 “이민 간 사람들이 이민의 땅에서 생산한 문학”을 설정한다. 망명문학이 뿌리는 한반도이나 그 반도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민족의 삶을 밖에서 문제 삼는다면, 이민문학은 그 뿌리를 이민 간 땅에서 내려 새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32-44쪽 참고).

한 정치·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독특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에 따라 1930년대에서 광복 이전까지의 재만 조선인 문학은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당시 국내의 문학보다 더욱 다양하고 활발하며 독특하게 전개된다. 이 시기 재만 조선인 시문학은 이주·정착이 본격화되고, 위 만주국이 수립되어 새로운 정치·사회적 환경이 조성된 1930년대부터 동시대 국내의 문단과 전혀 관련을 맺지 않은 새로운 문학 담당층이 등장하는데, 이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만주에서의 정착 과정이 시의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등 국내에서 전개된 시문학과 일정한 차별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문학에 대한 논의는 그 전개 과정에 있어서의 독특한 양상에 대해 각별히 주목하고, 이들 문학이 추구하고자 한 지향성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런 입장에서 본고는 일제강점기 만주 용정에서 간행된 『민성보』(1927.12~1931.1)를 비롯하여, 『북향』(1~4호, 1935~1936) 『만주시인집』(박팔양 편, 제일협화구락부문화부, 1942.9) 『재만조선인시집』(김조규 편, 예문당, 1942.10) 『만선일보』(1937.10.21~) <문예면> 등에 발표된 시 작품을 중심으로 이 시기 재만 조선인 시문학이 어떠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재만 조선인들의 삶과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항일 투쟁의식의 전경화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시문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항일 투쟁의식과 국권 회복을 전경화하여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이주 초기의 재만 조선인 시문학이 망명문학적인 성격을 띠고 형성된 데서 기인한다.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재만 조선인은 1910년 8월 일제의 한반도 강점 이후 그 수가 급증한다. 일제의 무단통치와 수탈을 견디지 못해 월강·이

주한 조선인들을 비롯하여, 항일 투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국외 망명을 선택한 수많은 우국지사와 문인들이 한반도와 이웃한 만주 지역으로 모여들어 집거하기 시작한 것이다. 재만 조선인 시문학은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다.²⁾ 1920년대 이전까지는 고국에서 활동하던 문인들이 창작 장소만 중국으로 옮겨 발표한 작품들이 대부분으로, 창작 담당층이나 시 양식 선택과 시적 전개 방법에 있어 동시대 한반도 문학의 이식이거나 한반도에서 행했던 문학 활동의 연장선상에 놓인다. 다만, 망명문학의 성격상 일제의 한반도 강점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만주로 건너온 수많은 우국 인사들이 망국민의 비분을 토로하거나 일제에 대한 투쟁의식을 다지는 내용이 주조를 이루어, 망명지의 반외세 저항 문학으로서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시문학의 기본적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 재만 조선인 시문학을 대표하는 것은 김택영·신정(신규식)·신채호의 작품이다. 창강 김택영(1850-1927)은 「고국의 10월 사변을 회상하여」(1905)를 비롯하여, 「안중근이 나라의 원수를 갚았다는 소식을 듣고」(1909) 「중국의 의병사 소감」 5수(1911) 「배를 타고 양자강으로 들어가며」 등 많은 작품을 통해 일관되게 고향과 민족에 대한 절절한 사랑, 일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경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안중근이 나라의 원수를 갚았다는 소식을 듣고」의 서두 부분을 보자.

2) 만주(중국 동북3성)로의 조선인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세기 중엽부터로 알려져 있지만, (임범송·권철, 『조선족문학연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9, 1쪽 및 8쪽) 초기 이주 조선인들이 남긴 작품들의 실상은 지금 남아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 확인할 수 없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볼 때, 재만 조선인의 시문학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국권 상실을 한 이후부터로 보인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후 일제의 이른바 '환위이민(換位移民)' 정책으로 파산당한 조선 농민들, 그리고 망국노가 되기를 원치 않는 조선인들이 대거 두만강을 건너 만주 지역으로 넘어간다. 그 결과 1920년대 초에 재만 조선인 인구는 도합 515,865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현규환, 『한국유이민사』(어문각, 1967), 현룡순, 『조선족 백년사화』(요녕인민출판사, 1982),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동아대 출판부, 1999) 참조.

평안도의 장사 한 사람
 두 눈 부릅뜨고 뛰어나왔다
 마치도 양새끼로 찢러죽이듯
 나라의 원수놈 통쾌하게 죽였다

이 시는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의 의거를 높이 찬양하고, 인용하지 않은 뒷부분에서, 이에 놀라서 가을바람에 낙엽 지듯 수저를 떨어뜨리는 침략자의 추악한 모습을 그려, 일제의 멸망과 조국의 독립에 대한 열렬한 염원을 담아내고 있다. 인용한 부분에서도 보듯, 격렬하고 투쟁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여 비타협적 항일 투쟁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신정(신규식, 1879-1922)은 1911년 손문의 <동맹회>에 가입, 그해 '무창기의'(신해혁명)에 참가했으며, 1912년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혁명문예단체 <남사(南社)>에 가입하여 혁명적 격정이 넘치는 뛰어난 시편들을 남긴다. 1916~1922년간에 창작된 그의 한시 140여 수(율시)와 산문시는 시집 『아목루(我目淚)』(중경, 예관선생기념회 편, 1939)에 수록되어 있는데, 시집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의 시는 자신이 흘린 피눈물의 기록이며 애국사상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그의 시는 민족의 비운을 통탄하고, 자주독립을 위해 싸울 결의에 충만해 있으며, 또한 자산계급민주주의 혁명과 민족 해방을 지향한 당대의 시대정신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신채호(1880-1936) 역시 「너의 것」 「매암의 노래」 「새벽의 별」 「1월 23일」 「철추가」 「나비를 보고」 「한 나라 생각」(1910) 등의 작품을 통해 강한 항일 투쟁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에 인용한 시는 민족이 처한 현실과 민족적 지향을 절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아까아까 온 하늘에
 가득하던 동무들
 동안이 멀다 한들
 새벽이 차다 한들
 이다지 영성

벌써—

(중략)

달은 이미 졌다

해는 아직 멀었다

이때! 이때

우리 곧 없으면

우주의 광명을 뉘 찾으랴

어데서!

— 「새벽의 별」³⁾ 부분

시인은 밤하늘에 빛나던 별들이 새벽이 가까워오자 빛을 잃고 사라지는 자연 현상에 빗대어 자신과 함께 반일 독립투쟁에 나섰던 이들이 점차 처음의 열정을 잃고 사라지는 모습을 개탄한다. 이어서 해가 떠오르기 전의 어둠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때이지만, 광명의 내일을 위하여 투쟁의 고비를 굳게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시인은 나라를 빼앗긴 조선의 현실과 망국노가 된 동족의 비통한 생활을 생동하게 표현하면서, 다가오는 광명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 힘겨운 새벽녘을 지켜나가야 할 지사의 높은 책임감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시는 암담한 현실에 대한 시인의 절절한 체험에 기초하여 당대의 문제를 진솔하게 노래하고 시인의 다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휘절하는 여러 군상들의 모습과 대비된 시적 화자의 높은 책임감과 투지가 더욱 빛나 보인다.

이처럼 김택영·신정·신채호 등 망명 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재만 조선인 시문학은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다. 1919년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으로 인한 마르크스주의의 전파, 국내에서의 3·1 운동 및 중국의 5·4 운동의 영향, 그리고 재만 조선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재만 조선인 시문학은 대중적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다. 이 시기 조선인의 만주로의 집단 이주는 식민지 조선을 일본의 항구적인 식량 공급원으로 고정시키는 한편, 기존의 지주제를 한층 강화함으

3) 김병민, 『신채호문학연구』(아침, 1989), 153-154쪽 재인용.

로써 일제의 식민정책에 기생하는 타협적 세력을 길러내고 모든 농민들을 철저히 ‘소작인화’하려 했던 일제의 농업 정책에 기인한다.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 조선의 농민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궁핍에 내몰리게 되고, 1920년대에 접어들어 자신이 경작하던 땅을 빼앗긴 식민지 조선의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농민이 되어 만주를 비롯한 해외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실향의 정서’였고 이민족에 대한 투쟁의 정서였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타향살이의 서러움, 타향을 고향으로 생각하여 적응하고자 하는 몸부림 등은 모두 실향의식의 소산이며, 실향의 원인 제공자인 일제와 이민족에 대한 적개심은 실향의식과 등가 관계에 놓인 주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제의 탄압과 수탈을 피해 고국을 등진 이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이 시기에는 널리 보급된 ‘혁명가요’는 앞선 시기에 자주 창작되었던 창가에 비해 일제의 침략과 봉건통치하에서의 암흑한 현실과 인민들의 고통스런 생활을 새로운 사상으로 깊이 있게 반영하는 한편, 새 사회에 대한 추구도 더욱 강렬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런 혁명가요들은 당대 민중의 투쟁 현실과 밀착되어 있고,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으면서도 일반 민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자유시로서는, 망국민의 불우한 운명을 애절하게 읊은 근파의 「님을 찾으며」(『민성보』, 1928.6.10), 일제와 봉건 지주들의 모진 수탈로 인해 도탄에 빠진 만주 이주 농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김근타의 연시 「여름의 농촌」(『민성보』, 1930.5.21), 백색 테러를 서슴없이 자행한 야만적인 일제의 무단통치로 인한 폐해를 비판하고 있는 남문룡의 자유시 「백색 테로」(『민성보』, 1928.5.31)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백색 테로」는 혁명가요나 신민요 형태가 현실을 즉각적으로 반영한 데 반해, 투쟁의 당면 과제나 현실을 반영하는 서정시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당대 문단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보기 드문 작품이라 할 만하다.

1930년대에 들어서는 일제의 ‘축방(築防) 정책’에 의해 ‘만주 개척민’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조선인의 조직적인 집단 이주가 강제되는 한편,

만주사변(1931) 이후 중국이 전면적인 항일전쟁에 들어가면서 항일 유격 근거지를 중심으로 항일혁명문학이 본격적으로 발흥한다. 이 시기의 항일 투쟁의식을 전면화한 문학 양식으로는 무엇보다도 항일가요를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항일 무장투쟁과 더불어 창작되기 시작한 항일가요는 철저한 반일(反日) 민족해방 같은 민중의 염원을 대변하고, 시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항일전가」를 비롯하여 「9·18사변가」 「민족 해방가」 「과쟁 반대가」 「연길 감옥가」, 「의용군 행진곡」(이덕산 작사) 「최후의 전진」(석정 작사) 「전사」 「어둠을 뚫고」(김학철 작사) 「진군가」 「혁명가」 「민족 해방가」 「자유는 빛난다」 「조선의용군추도가」(김학철 작사)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 시기 항일가요는 행진곡·무도곡·십진가·달거리·요일가 등 다양한 형식을 바탕으로, 앞부분에서 일제의 만행을 나열하여 민중의 분노를 촉발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모두 일어나서 항일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직설적으로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내용상에서는 일제의 침략상을 폭로하고 나라 잃은 민족의 비참한 운명을 보여주는 한편, 항일 민족연합 통일전선의 추구와 무장 투쟁을 고취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항일 무장투쟁에서 굴함 없이 싸우는 투사들의 헌신성과 고결함을 노래한 작품도 다수 보인다.

너희들은 짐승같은 강도놈이다
우리는 평화사회 찾는 혁명군
정의의 총칼은 용서 없나니
정당히 판결하라 죄인이 누구냐를

팔다리에 철쇠차고 자유 잃은 몸
너희놈들 호령에 굴복할소나
오늘 비록 놈들에게 유린당하나
다음날엔 우리들이 사회의 주인

일제놈과 주구들아 안심말어라

너희 세력 강하다고 뽐내지 말라
70만리 넓은 들에 적기 날리고
열린다 감옥문 자유세계로!⁴⁾

인용한 부분은 이 시기 대표적인 항일가요의 하나인 「연길 감옥가」의 5~7절이다. 이 시는 적의 고문과 박해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독립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민족해방의 의지는 조금도 굽히지 않는 항일 민족투사의 강인한 정신과 풍모가 잘 보여주고 있다.

호박은 가을에야 따는줄 알았더니
겨울에도 호박은 풍년이라네
공산군 '토벌'에 으르렁거리며
거뜰머뜰 떠났던 황군나리들
올적에는 그 위풍 어데로 갔나
수레마다 마대를 싣고 오기에
둥글둥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백두산에 심어났던 호박이라니
일년사철 잘도 따는 왜호박이라네

- 「왜호박」

위에 인용한 작품에서는 백두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항일유격대를 토벌하러 갔던 일본군이 패퇴하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급하게 도망치느라 미처 시체를 수습할 수가 없어 머리만 잘라 마대에 싣고 오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호박'이라고 강변하는 모습을 그리며, 일제에 대한 적개심과 승리의 그날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항일가요는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여 대체로 단순하고 알기 쉽게 쓰여졌으며, 항일무장투쟁의식을 긍정하고 선동하려는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참여한 계

4) 임범송·권철, 앞의 책. 91- 92쪽. 재인용.

급적 대립을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서정과 서사적 내용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켰으며, 정론성을 강하게 표출한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적 특성은 이후 재만 조선인 시문학의 한 전통으로 자리 잡는다. 1930년대 항일가요의 주제의식과 기법적 특징은 광복 후 재중 조선인 시문학에 그대로 전승되고, 이것은 다시 중국 건국 이후 중국조선족 시문학 발전의 토대가 된 것이다.

1937년 '7·7사변' 이후 제2차 국공합작의 실현과 더불어 항일 민족통일 전선이 형성됨에 따라 재만 조선인들이 조선의용군 등에 대거 가담하여 항일 투쟁에 나서게 된다. 이때의 항일 투쟁의식과 조선의용군의 활동을 노래한 시를 모아 『자유의 노래』라는 시집을 냈다고 하는데, 대부분 전해지지 않고 있다. 지금 남아 있는 「광복과 부흥의 길로」(여전)를 비롯하여 「압록강」(백치) 「어머니를 그리어」(운청) 등의 작품을 통해 볼 때, 이 시집에는 민족의 재생을 갈망하며 광복의 날에 대한 기대를 읊은 내용의 시들이 수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 시기 들어 활발한 활동을 보인 이육사는 「별」 「나의 노래」 「모아산」(1936) 「금봉어」(1936) 「북두성」(1937) 「별」(1942) 「새화원」(1942) 등 많은 작품을 통해 일제 통치하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시인의 의지와 이상을 간곡히 표출하고 있다. 그의 대표작인 「북두성」을 살펴보자.

보아 천년
생각해 만년
즐거울기 흐른 꿈은
지금 내 맘속에 밝는 날 장미원을 그리고

구름을 밟고 기러기 나간 뒤
은하는 지고 달도 기울어

오오, 밤은 상아처럼 고요한데
아세아 산맥너머서

이 강산 새벽을 소리쳐 일으킨다⁵⁾

위의 인용은 이 시의 결말 부분이다. 시인은 끝없는 동경심에 찬 눈으로 멀리 하늘에서 반짝이는 밝은 북두성을 바라보면서, “어둠의 홍수가 범람하는” 암울한 시대는 조만간에 지나가고 대지에 새봄이 돌아오리라는 신념을 가지게 된다. 이에 시인은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두고 그려온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숙원을 ‘장미원’으로 상징하고 위와 같이 노래하는 것이다. 다소 표현에 있어 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호방한 로망시로서 시인의 신념을 충실하게 드러낸 시라 할 수 있다.

가요 「선구자」(일명 「용정의 노래」)의 작사자로 널리 알려진 윤해영은 서정시 「해란강」 「오랑캐 고개」 「4계」 「밭해고지」 등을 발표, 조선민족의 역사를 돌이키면서 겨레의 염원과 정서를 대변하였다. 또한 윤동주는 그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정음사, 1948)에 수록된 「서시」 「자화상」 「십자가」 「별 헤는 밤」 「새로운 길」 등의 작품을 통해 민족의 얼과 존엄을 수호하고 되찾으려는 의지를 내보인다. 그의 작품들이 발산하는 삶의 태도와 시적 구조의 아름다움은 재중 조선인 시문학의 예술성을 한 차원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학성은 겨레의 고매한 지조와 품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지향을 호방하고 낭만적으로 그려 보이는데, 「척촉화」(1935) 「별」(1942) 「북두성」(1945) 등이 그러하다.

김조규는 「전선주」(1941) 「가야금에 붙어」(1942) 등을 통해 백두산에서 활동하는 항일 유격대의 활동상을, 「찌저진 포스타가 바람에 날리는 풍경」(1941)에서는 위(僞)만주국의 허위 이념인 ‘오족 협화’에 대해 반발하는 조선인들의 저항을 보여주고 있다.

눈보라 기승치는 이런 밤이면 의례 密林에선 총소리가 울리고 우등불이 타올랐으니 매맞아 죽은 아버지와 굶어 죽은 어머니와 불타 죽은 동생의 원한이 그 불길 속에 황황 타고 있음을 말없는 천년 원시림인들 어찌 모르랴?

5) 조성일·권철, 『중국조선족문학사』(연변인민출판사, 1990). 190-191쪽. 재인용.

(중략)

총을 멘 그의 아들 딸들이 잃어버린 고향 땅의 한줌 흙을 가슴 깊이 소중한 간직하고 조상네 옛 기억을 찾아 선혈로 흰 눈을 물들이며 백두산 밀림 속을 걸어가고 있으니 전선주, 너는 그 속 전하러 大陸을 바느질하며 강과 언덕 건너고 넘어 끝없이 뻗어가는 것이구나.

— 김조규, 「전선주」(1941.12) 일부

인용한 시는 이 시기 백두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항일 무장투쟁대의 활약을 그리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은 항일 무장투쟁대의 의기와 활약상을 전하면서, 밝은 빛을 전달하는 전선주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이들의 활동을 일제에 의해 고통 받는 많은 동포에게 전달하여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자신이 맡은 숭고한 사명임을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시문학은 카프로 대표되는 계급의식의 표출이나 이에 대타의식을 가지고 민족적 정조에 집중하던 국내의 시문학과는 달리, 만주 이주 조선인의 민족의식과 현실을 반영하여 반일 민족의식을 강하게 전경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이것은 당시의 만주 지역이 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자리 잡으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국내의 문학 활동만을 대상으로 한 1920~30년대 우리 시문학 범주를 확장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가를 엿보게 한다.

3. 실향의식의 내면화—향수와 방랑

재만 조선인 시문학에서, 고향을 떠나 만주에 이주하게 된 유·이민의 삶을 본격적으로 형상화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의 ‘국책이민’ 정책이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실시된 19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이다. 하지만 이전에도 재만 조선인 시문학에서는 단속적으로 짐짝처럼 아무렇게나 ‘이민열

차'에 실려 만주 등지로 떠나갔던 이농민들의 삶을 그 주요한 시적 현실로 수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이민들의 모습은 시 작품 속에서 만주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희망, 쫓겨나온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고 낯선 타향에서의 부적응과 현실적 고난에 대한 한탄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재민 조선인 시문학에서 가장 처음 드러나는 이주의 감정은 새로운 땅, 만주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희망이다. 이런 기대와 희망은 대부분 고향에서의 빼앗긴 땅에 대한 대리 충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문전옥답 다 빼앗기고
 거지생활 웬 말이나
 밭 잃고 집 잃은 벗님네야
 어디로 가야만 좋을가나
 아버님 어머님 어서 오소
 북간도 벌판이 좋답디다

인용한 것은 1910년대의 대표적인 민요인 「북간도」이다. 이 민요에는 일제의 탄압과 착취로 “문전옥답 다 빼앗기고” 국외로 내몰리게 된 우리 민족의 비참한 생활 처지와 그러한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중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참담한 실상이 담겨 있다. 화자는 고향에서 내몰릴 형편에 놓인 부모에게 북간도 벌판으로 오라고 권유한다. 고향에서 내쫓긴 유·이민들에게 막연한 희망의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끝없는 무주공산의 벌판으로 인식되었던 만주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당시의 보편적인 것으로, 이 때문에 만주는 쉽게 막연한 희망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비개인 하늘에 오색이 영농
 거츠른 이 강산에 새봄이 왔네
 아무렴 그러치 그러쿠말구
 봄마지 나서는 만주라네

오늘은 재-스님이 박첨지생일
 내일은 압마을 탄실네 잔치
 아무렴 그러치 그러쿠말구
 날마다 명절날 만주라네
 장작불 피우고 허리긴-밥
 벼 한섬 팔으면 광목이 한통
 아무렴 그러치 그러쿠말구
 수심이 엮는곳 만주라네

(중략)

고향이 그리워 썬난 김서방
 삼년이 모차서 되도라오네
 아무렴 그러치 그러쿠말구
 우리네 살 곳은 만주라네

- 최수복, 「민요 만주메나리」 일부⁶⁾

1930년대 말의 시점에서 이런 민요가 실제 재만 조선인 사이에서 불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비개인 하늘에 오색이 영농”이라는 서두부터가 ‘오족 협화’를 연상케 하고, 만주에서의 삶을 낙원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격양가 형식의 이 민요가 수록된 『재만 조선인 통신』이 봉천에 있던 친일단체인 <홍아협회>에서 발간된 것에서 보듯, 이 민요는 당시 위(僞)만주국의 국책 홍보용 선전물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만주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려는 당시 이주 조선인들의 마음을 엿볼 수는 있다.

이와는 달리, 만주를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내 땅이 아니라, 언젠가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 잠시 머무르고 있는 ‘낯선 이방’이라는 인식 또한 강렬하게 남아 있다. 이런 경우, 시의 화자는 흔히 ‘방랑자’의 모습을 띠게 된다.

6) 『재만조선인통신』 47·48합호, 1938.3, 4(쪽).

별판 우에는
 갈잎도 없다. 高粱도 없다. 아무도 없다.
 鍾樓 넘어로 하늘이 끊어져
 黃昏은 싸늘하단다.
 바람이 외롭단다.

머얼리 停車場에선 汽笛이 울었는데
 나는 어데로 가야 하노?

호오 車는 떠났어도 좋으니
 驛馬車야 나를 停車場으로 실어다 다고

바람이 유달리 찬 이 저녁
 머인 포플라 길을 馬車 우에 홀로.

나는 외롭지 않으련다.
 조금도 외롭지 않으련다.

- 김조규, 「延吉驛 가는 길」(『조광』 1941.1)

시인이 직면한 만주의 현실은 아무 것도 없는 황량한 별판 그대로다. 아는 사람도 없고, 혼한 갈잎이나 ‘고량’조차 찾을 수 없는 적막한 만주 별판에 서서 시인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하늘이 무너져 내린 듯한 아득한 느낌을 맞이한다. 고향에서 추방당해 낯선 곳에 왔음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먼 곳에 있는 정거장에서 기적소리가 들리고, 시인은 이 자리를 벗어나 어디로든 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정작 길을 나서도,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 오도 가도 못하고 찬바람이 부는 저녁 길 위에 서서 “나는 외롭지 않으련다 / 조금도 외롭지 않으련다.” 라고 스스로를 달래는 시인의 목소리에는 진한 슬픔이 묻어나고 있다.

감자, 조, 귀리, 각양의 잡곡 朝夕도
 그 어느 위대한? 米政治의 공적임을 들은 바 없고

근로 儉衣의 국민적 美風 도
 그 어느 현명한 두뇌의 하루아침 長廣舌도 요구한 적 없고
 때로 그들께 머-니 고향의 蒼然한
 鄉愁를 되씹는 습성은 있다 해도
 아직 한번 그 系譜를 잃어진 祖上 속에
 뒤져 찾는 흥미도 제것으로 한적 없나니

至純한 것이여 至良한 것이여
 최상의 移民이여
 정히 행복 여기 있어 可하고
 정히 행복이란 여기 있을 것

하기에 오늘도
 큰 붓짐 작은 붓짐 들고 안고지고 이고
 다시 奧北 異邦 胡地로
 지나친 행복에 지쳐 떠나는 걸음들이 자못 數多다

— 이찬, 「북방도(北方圖)」부분(『조광』 1940.2)

이 시의 화자는 강제 이민으로 인한 유랑 끝에 만주 땅 한 귀퉁이에 정착하려 했으나, 어쩔 수 없이 다시 “오북 이방 호지”로 떠나야만 하는 만주 이주민들의 간난을 노래하고 있다.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땅을 일구어 왔지만, 하루아침에 다시 먼 북방의 오지로 내쫓기게 된 이주 조선인들의 험난한 삶의 현장을 엿볼 수 있다.

재중 조선인 시문학의 주제로 1930 년대에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것이 ‘향수’이다. 이때의 ‘향수’ 즉 떠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란 이주 조선인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간고한 현실을 극복하는 심리적 치료 방법으로 제시된다. 『만주시인집』에 수록된 송철리의 「도라지」⁷⁾를 살펴보자.

7) 박팔양(편), 『만주시인집』(제일협화구락부문화부, 1942.9), 26쪽

도라지 피면 八月도 피고
八月이 피면 향수도 피드라

산,
물,
길,
돌쇠,
갓난이,
삼살개,

하염없이 쓰러보는 파-란 꽃송이에
무지개마냥 아롱지는 흘러간 옛마슬.

그러나-
도라지 지면 八月도 지고
八月이 지면 향수도 지드라.

- 송철리, 「도라지」

이 시의 전면을 뒤덮고 있는 것은 ‘향수’이다. 이 시의 화자는 도라지가 피는 팔월이면 어릴 때 떠나온 아련한 고향의 모습을 떠올린다. 화자에게 있어 고향은 어릴 적 추억이 묻어있는 곳이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도라지꽃을 통해서만 추억할 수 있는 곳이고, 쉽게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원형 심상을 환기하는 ‘도라지’를 전면에 내세워 향수를 노래하는 솜씨는 일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에서 시인은 회상체의 문맥으로 두고 온 고향에 대한 향수를 짙게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고향에서의 아름다운 추억과 비참한 현실 사이의 단절이 회상 기법에 의해 효과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이 시에 그려진 고향은 “산/ 물/ 길/ 돌쇠/ 갓난이/ 삼살개”로 묘사된 데서 볼 수 있듯 떠나 온 조선의 전형적인 시골마을로 시인의 어릴 때 추억이 묻어있는 곳이다. 때문에 “무지개마냥 아롱지는 흘러간 옛마슬”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으로 환기된다. 반면 현재 시인이 살고 있는 곳은 마지막 연에 드러난 것처럼 도라지가 지고, 향수도 가슴 속에 묻어야 하는 각박한 곳이다. 이처럼 시인은 조선인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꽃인 ‘도라지’의 이미지를 빌어 고향의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한편, 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풍요롭고 따스하던 고향의 이미지를 중국 땅에서의 힘든 삶에 대비시켜 이주 조선인들이 느끼는 상실감을 실감 있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新材寧에도 나무리벌
물도만코
쌍조흔곳
滿洲奉天은 못살곳 .

왜 왓느냐
왜 왓드냐
자곡자곡이 피째이라
고향山川이 어디메냐.

黃海道
新材寧
나무리벌
두뎀이 김메며 살엇지요.

올버논에 다은물은
출영출영
벼잘안다.
新材寧에도 나무리벌.

— 김소월, 「나무리벌 노래」(『백치』, 1928)

인용한 시는 당시 이주 초기 조선 유·이민들이 겪었던 고통스런 삶의

모습을 간접적이거나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 시의 화자는 현재 만주 봉천의 척박한 땅에서 살면서 떠나온 고향 '나무리벌'의 풍요로웠던 옛날을 추억하고 있다. 나무리벌(황해도 제령군 북률면 여물평)은 일제의 식민지 농업 정책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고장으로 알려져 있는데⁸⁾, 시의 화자는 일제의 수탈로 내쫓기듯이 떠나온 그곳이 오히려 그리울 정도로 만주 봉천에서의 고단한 삶을 토로하고 있다. 봉천에서의 삶은 “못살 곳” “자국자국이 피땀”이라는 말에 드러난 것처럼 극악한 것으로, 화자의 “왜 왔느냐 / 왜 왔느냐”는 한탄이 절절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

靜穩의 집

무덤은 너무나 寂寥하다

하도 故鄉을 그리기

넋시나마 南쪽을 向했다

외로운 밤엔

별빛치 慰撫의 손을 나린다는데

墓標업는 무덤들이

웅기 웅기 정잡게 돌너안것구나!

눈보라 사나웁든

매듭만흔 歷史를 이야기 하는거나

- 천청송, 「묘지」⁹⁾

이 작품은 천청송이 「선구민(先驅民)」으로 묶어 발표한 5수 중 마지막 작품이다. 「선구민」은 「이주민」 「주막」 「설야(雪夜)」 「강동(江東)」 「묘지」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재만 조선인의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고난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용한 「묘지」는 떠나온 고향이 너무나 그리워, 죽어서도 넋이나마 고향에 가길 기원하는 절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이밖에 떠나온 고향을 담아낸 작품으로는 송철리의 여러 시편을 비롯하

8) 이에 관해서는 윤영천, 『한국의 유민시』(실천문학사, 1987), 98-99쪽 참조.

9) 박광양(편), 『만주시인집』(상동)

여, 안서의 「동로방천(東路坊川)」(『농민』, 1932.9), 김여의 「향수」, 목신의 「내가 죽었어? 용화에 꽃구경하고」, 백악산인(白岳山人)의 「조선심(朝鮮心)」(『민성보』, 1928.5.27), 철주의 「연가해(燕歌解)」, 이월촌인의 「님 찾는 마음」, 천청송의 「이역의 밤」 「드메」, 성기돈의 「기억」, 김달진의 「용정」 「향수」, 김조규의 「연길역 가는 길」 「호궁(胡弓)」, 남승경의 「북만(北滿) 소묘」, 월촌의 「봄꽃」, 이호남의 「춘 정거장」, 손소희의 「밤차」, 천청송의 「드메」 「무덤」 등이 있다.

4. 정착의지의 형상화

일본이 대륙을 침범하면서 이제까지 만주를 지배해 왔던 만주족·한족·조선족·몽고족은 한순간에 피지배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위(僞)만주국이 내건 ‘오족 협화’라는 구호는 말 그대로의 구호일 뿐이었다. 특히 이 중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쫓겨 만주로 온 이주 조선인들은 중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이등 국민으로 인식되는 등 민족적 차별을 받는 한편, 만주가 항일 무장투쟁의 근거지가 되면서 좌우 이념 대립에 의한 고통을 받게 된다. 게다가 정착 이후 발생한 세대간의 갈등, 빈부 차이에서 빚어졌던 민족 내부의 대립 등도 새로운 고통으로 대두하는데, 이는 재만 조선인 시문학에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된다.

일제강점기 만주 이주민의 생활사를 증언하는 시적 수용은 다양하게 드러난다. 중국 관현의 압박, 중국 지주의 횡포, 마적의 폐해, 힘들여 개간한 땅을 중국인 지주 및 ‘입식 일본인’ 등에게 빼앗긴 후 계속되는 유랑 생활의 악순환, 술집 작부로 전락했거나 어린 나이로 ‘꽃 영업’을 해야 했던 수많은 이주 조선인 농민들의 딸이 겪었던 비극적인 삶이 극적으로 변주되어 작품 여기저기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당대의 시문학 작품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뉘라서 간도가 좋다더냐」

「헛농사」 「우리 살림」 「벼가 자라네」 등 민요 형식을 취한 시들이 적지 않게 발표되고 있는데, 집단적 창작품인 민요 양식의 특성상 이들 작품은 이주 조선인들이 처한 고난과 슬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려 애쓰는 모습 등을 담고 있어 이 시기 재만 조선인들의 삶과 의식을 알아보는 좋은 자료가 된다. 다음 시¹⁰⁾에는 만주 이주민의 처참한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겉집에선 저녁연기 끊은지 오라고
 뒷산에 부엉새는 깊은밤을 노래하는데
 때지난 이때 누구의 집에서 한술밥 얻어오라
 여전히 울고있는 어린애는 말끝마다 밥주 -
 한술짓는 부모의 간장 다 녹여내리나니
 긴긴 여름밤 또 어찌나 새워보내라

- 「밤」 부분

어린애는 배고파 밥 달라 울고 있는데, 어미는 굶주려 맥없이 늘어져 있다. 밤은 깊어만 가는데, 밥 한술 얻어올 데도 변변히 없는 상황이다. 만주별판에 대해 막연하게 가졌던 기대와 동경은 어느덧 사라지고, 어린아이 하나조차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궁핍의 삶이 언제 그치게 될 지 기약조차 하지 못하는 암담한 삶의 모습이 이 시에 담겨 있다. 이런 빈곤한 삶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다음 시를 살펴보자.

풍년이라 좋은 곡식
 입쌀 한말 녀냥하고
 좁쌀 한말 5각이니
 세금 물고 변돈 두고
 키만 들고 나왔으니

10) 김근타, 「밤」(『민성보』 1930.5.21), 3면 이 작품은 김근타의 연시 「여름의 농촌」 중 하나이다.

추운 겨울 어찌하며
긴긴 여름 어찌할고

- 「헛농사」¹¹⁾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 풍년을 맞았건만, 세금 물고 빚 갚고 나니 빈털터리가 되어 길가에 나앉게 되었다는 농사꾼의 이야기가 절절하다. 일제의 강압적 농촌 착취를 피해 낯선 중국 땅으로 왔는데, 이곳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 농민의 입에서는 한숨만이 나올 뿐이다. 「뒤라서 간도가 좋다더냐」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앞에는 사막이요 뒤에는 민둥산”인 곳을 옥토로 바꿔놓고서도, 정작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다시 내몰리게 되는 현실이 이 시기 이주 조선인들이 겪었던 고단한 삶의 실체였던 것이다.

최수복의 「내 신세」(『농민』, 1932.4) 나 김조규의 「대두천역에서」(『만선일보』, 1941.4) 「삼등대합실」(1941) 등의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들 시에서는 잡초만 무성하던 불모지를 개간하여 드넓은 고랑 밭으로 만들고 이를 다시 수전(水田)으로 뒤바꿔 놓는 기적을 이룩하였지만, 그 땅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 쫓겨나 다시 오지로 떠나야만 했던 재만 조선인의 처참한 삶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다. 이설주의 「이양(移秧)」(『들국화』, 1947)과 「강남으로 가는 이민」(『방랑기』, 1951)에서도 역시 만주로 쫓겨간 조선인 유·이민들이 거지꼴로 다시 대륙을 유랑하는 눈물겨운 정경을 통해 당대 이주민의 비극적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한편 안영균의 「북국 뜰에서」(『비판』, 1932.2)는 거친 들판을 일구어 옥토로 만들어 놓아도 그곳에 정착해 살기는커녕 항상 배를 주리며 남북으로 또다시 밀려다녀야 하는 재만 조선인 농민을 부유한 중국인 지주와 선명하게 대비, 이주 조선인들의 유랑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재만 조선인 동포 문제가 전 조선인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1931년 무렵, 국민당 봉건 군벌의 반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작품들도 그러하다. 이

11) 조성일·권철, 앞의 책, 138쪽. 재인용.

밖에 박우천의 「이국의 봄」(『조선시단』, 1929.1), 정영수의 「흐린 날」(『비판』, 1931.11) 김조규의 「카페 ‘미쓰 조선’에서」 「다점(茶店) ‘알라라도’ 2장(章)」 등의 작품에서 마주치는 것은 재만 조선인 사회에서의 고달픈 삶과 그런 삶을 조장하는 민족 갈등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런 종류의 시들을 통해 우리는, 정착 과정에서 중국인 지주의 횡포, 마적의 폐해, 중국 관헌의 압박 등으로 인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끝없이 이리저리 쫓겨 다녀야 했던 이주민들의 고단한 삶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재만 조선인 농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 것은 친일 조선인 지주들이었다. 박우천의 「이국의 봄」에는 이들에게 시달리는 이주 조선인의 참담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짓밟히는 몸이 하도 서러워
 설곳을 찾아 나는 예까지 왔네.
 햇빛은 이 몸에 어찌타 목숨은 남아서
 빛다른 악마가 또한 입을 벌리네.
 거츠른 이 별관에 누구를 믿을꼬?
 내나라 친구를 믿었더니만,
 외로운 마음을 주었더니만,
 그 손에 죽고 쫓길 줄을 내 어이 알았을꼬?

무지한 이 나라 주인들에게
 옥답을 등지고 쫓길 때도 싫더라마는,
 마음을 주었던 동족들에게
 초막을 등지고 쫓길 때는 더욱 싫더라 나는.

— 박우천, 「이국의 봄」 일부

이 시의 작중화자인 재만 조선인 농민에게는 세 종류의 ‘빛 다른 악마’가 삶을 위협하고 압박하는 존재로 다가선다. 조상 때부터 살아온 고향 땅에서 내쫓아낸 일제, “과거 우리네 조상이 뛰놀던 별관”의 주인이 되어 횡포를 부리는 중국인 지주, 이민족보다도 더 모질게 착취하는 재만 조선인

지주가 그들이다. 특히 재만 조선인 지주들은 척박한 만주 땅에서 가까스로 연명해가는 동족을 허름한 초막에서조차 내쫓을 뿐 아니라, 타살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자행하는 악덕 지주들이고, 그래서 걸핏하면 조선인 농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중국 군경'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음 시에서 보듯, 이들 조선 농민들은 점차 자신이 이주한 만주땅에 정착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꼬지깨의 초원이
고량(高粱)의 평원이 되고
고량의 평원이
벼이삭의 바다가 되는 동안
내사 수염과 청춘을 바꾸었고
안해는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잔뼈가 꺾어진 고향말이노
낙동강물을 예워 젖처럼 마시며
아배사 할배사 살았드란들
그것이야 아스런 옛이야기지.

- 김복원, 「봄을 기다린다」 일부¹²⁾

이 시 역시 앞에서 살펴본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앞부분에서는 이주·정착 초기의 고난과 역경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후반부에 가면서 화자는 어려서 “잔뼈가 꺾어진 고향”은 너리에서 점점 잊혀져가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만주에서 봄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운명이 되었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화자의 모습은 단순한 숙명론적 체념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주 조선 농민들이 정착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게 해 준다.

12) 『만선일보』, 1942.3.23; 김조규(편), 『재만조선인시집』(예문당, 1942), 32-33쪽.

한편, 정착기에 들어선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사회는 이른바 ‘오족 협화’에 대한 찬반과 대립적 시각에서 빚어지는 내부적 갈등으로 반목과 질서가 첨예해진다. 이 시기의 재만 조선인 시문학은 이주 정착기에 들어선 재만 조선인 사회에서 발생한 각양의 이념적 갈등들을 가감 없이 담아내 보인다. 우선, 이 시기 재만 조선인의 심정을 표현한 시문학 작품에는 일제와 위(僞)만주국과의 동화를 자연스럽고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 적지 않은데, 심연수의 「신경(新京)」(1940.5)¹³⁾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는 달리, 일제와 위(僞)만주국의 기만에 항거, 투쟁의식을 적극적으로 고취하고 있는 작품도 많이 발표된다. 김조규의 「찌저진 포스타가 바람에 날리는 풍경」(『김조규 작품집』, 1941)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김조규는 이 작품에서, 위(僞)만주국의 허위 이념에 반발하는 이주 조선인의 저항을 그려 보인다.

아, 한 많은 세상살이
허리는 굽었지만
마음이야 굽어들손가
마을은 침묵으로 외면하고 있는 한낫

오늘도 또 한 사람의 ‘통비분자’
뭉이위 성문 밖을 나오는데
‘王都樂土’ 찌저진 포스타가
바람에 喪章처럼 펄럭이고 있었다
— 「찌저진 포스타가 바람에 날리는 풍경」(1941.8)부분

이 시는 괴뢰 만주국에서 내세웠던 ‘오족 협화’라는 이념과 정책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폭로하고, 이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 허위 이념에 반발

13) 『20세기 중국조선족문학사료집 제1권 심연수문학편』(중국 : 연변인민출판사, 2000). 이 작품에서는 “國都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었어라 / 街頭에 가고오는 五族의 우습소리 / 아니 王道樂土 다른데 없으이다”(216쪽)라 하여, 일제의 괴뢰였던 만주국의 앞날을 축수하고 ‘오족 협화’와 ‘왕도 낙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현실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간도 이주 조선인의 저항을 담고 있다. 시인은 “네 형제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을 “형제를 미워하라, 이웃을 경계하라”
고 풍자적으로 인용하여,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여 이주 조선인 사회의 분
열을 획책하는 일제 및 위(僞)만주국의 사특한 의도를 정면에서 비판하고
있다. ‘통비분자’로 몰아 체포해가는 한편에선 그들이 주장하던 ‘왕도 낙토’
의 포스타가 찢어져 상장(喪章)처럼 날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신랄한
풍자가 그러하다.

한편, 소수이긴 하지만 고국에서 전개되던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시인의 강한 자의식을 실험적 형식에 담아낸 작품들도 발표, 이 시기 재중
조선인 시단을 더욱 풍족하게 만든다. 이수형을 비롯하여 김복원·김조규
등의 시¹⁴⁾는 그 좋은 예이다.

一萬系列의 齒科術時代는 밤의 海洋에서 섬의 하-모니카를 분다
一萬系列의 化粧術時代는 空港의 層階에서 썰근 추-립푸 저녁을 심포니
한다 記念日 記念日의 추립푸는 葬送曲에 핀 紙花였다
明日의 손수락을 算術하는 춘-립푸는 머-니 푸디스코 압페
써오르는 써오르는 비누방울의 夜會服 記念日記念日의 幸福을 約束 한 肉
體의 女人이 雙頭의 假面을 장식하는 날 七色의 슈미-즈가 孔雀의 미소를
띄워 나의 海洋의 蜃氣樓를 찌러 왔다
- 이수형, 「창부의 운명적 해양도」(『만선일보』, 1940.8.27) 일부

14) 이수형의 「백란(白卵)의 수선화」(1940.3.13) 「창부(娼婦)의 운명적 해양도(海洋圖)」, 김복원의 「태동(胎動)」(1940.4.16) 「의자」(1940.8.24) 「비둘기 날으다」(1940.8.28), SSY의 「기염(氣焰)」(1940.4.19), 함형수의 「정오(正午)의 모-랄」(1940.6.30), 신동철·신동철의 공동작인 「생활의 시가(市街)」(1940.8.23), 신동철의 「능금과 비행기」(1940.8.29), 강욱의 「악보를 가졌다」(1940.8.25), SSY의 「기염(氣焰)」(1940.4.19), 송석영의 「시인(詩人)」(1940.4.27), 천청송의 「우감록(愚感錄)」(1940.5.7), 정야야의 「거리의 비문(碑文)」(1940.5.14), 함형수의 「정오의 모-랄」(1940.6.30), 『만주시인집』에 실린 김조규의 「P소년 일대기(一代記)」 「실내(室內)」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앞서 예시한 시들보다는 약하지만, 안형준의 「기상도」(1940.1.10)나 권영화의 「권태」(1940.4.23) 「진찰실 풍경」(1940.5.7) 등과 여기에 거론하지 않은 다른 <시현실詩現實> 동인들의 시도 모더니즘 경도의 모습을 보여준다.(이상 날짜만 적은 것은 모두 『만선일보』 게재 작품이다.)

이 작품은 창부의 슬픈 운명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나, 창부와 해도(海圖)의 모호한 관련성을 비롯한 요령부득의 시어 구사로 인해 시인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다만, 우리가 이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인이 사물의 명료한 형상화보다는 대상에게 내재되어 있는 감정과 의식의 미묘한 흐름을 보여주려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도는 일단 이상(李箱)이나 1930년대 말에 있었던 『단층』파의 초현실주의 시와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강한 항일 민족투쟁의 당면 과제와 현실적 간고함의 형상화 필요성에 경도되었던 동시대 재만 조선인 시단의 일각에서 이러한 실험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은, 물론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이미 이 시기 재만 조선인 시단이 조국과는 별개의 장을 형성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착 단계에 접어든 재만 조선인 사회는 봉건 군벌과 중국인 지주 등으로 대표되는 이민족과의 갈등, 재만 조선인 지주들과의 계급적 갈등, 친일과 반일의 민족적 갈등, 이념을 둘러싼 민족 내부의 갈등 등 많은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당대의 재만 조선인 시문학은 이 시기 이들이 겪었던 이런 갈등 양상들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반일 민족의식과 항일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로만시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척박한 현실과 대비하여 떠나온 고향에 대한 향수를 읊은 서정시, 정착 과정에서 겪는 고단한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리얼리즘 시도 다수 발표되고 있고, 자의식 과잉의 모습을 전위시의 형태에 담아내는 모더니즘 시도 간간히 눈에 띈다. 따라서 이런 시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정착기에 접어든 재만 조선인 사회의 구체적인 실상을 재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족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한편, 1945년 광복을 맞이한 재만 조선인 사회는 귀향과 잔류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을 찾아 귀향을 택했지만, 토지 개혁 등 일련의 개혁 정책에 기대를 가진 이들은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자신들이 경작하던 땅에 머문다. 오늘의 중국조선족

이 그들이다. 광복 이후 중국은 장개석 국민당 정부군과 모택동 공산당 정부군 사이의 4년여에 걸친 ‘제3차 국내혁명전쟁 시기’에 돌입하는데, 만주 지역은 모택동의 중국공산당 점령지구로서 토지 개혁 등 ‘민주적 개혁’이 진행된다. 당시 중국 잔류를 선택한 조선인들은 이 지역에서 벼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따라서 이들은 중국공산당의 토지 개혁정책에 대한 기대가 컸고, 중국공산당은 1948년 봄 연변 지역의 토지 개혁을 완수하면서 이들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낸다. 다음에 인용한 시는 중국공산당의 토지 개혁에 대한 재만 조선인의 호응을 잘 보여준다.

평생에 가져보지 못하던 이 밭 이 논배미가
내 땅이 될줄이야 내 땅이 될줄이야
갈퀴같은 손아귀에 낫들어 가을하려
피줄처럼 팔뚝을 크게 내지으며

— 김진, 「토지연은 이 기쁨 쏟아쏟아」 일부¹⁵⁾

이 시는 자신이 경작하는 땅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평생의 소원을 이룩한 한 농민의 기쁨을 격정적 목소리와 활발한 언어로 그린 작품으로, 별다른 문학적 기교 없이 토해지는 화자의 목소리에서 토지 개혁이 이 당시 재만 조선인 농민들에게 얼마나 열렬한 환호를 받았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 이육의 「옛말」, 「석양의 농촌」, 채택룡의 「내 땅에 내 곡식」, 박순영의 「토지 연은 기쁨」, 김창석의 「건설의 혈조」 등도 같은 문맥에서 해석할 수 있다.

5. 결 어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시문학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망명문학적 시각

15) 임범송·권철, 앞의 책, 96쪽. 재인용.

에서 다루어온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실제 재만 조선인 사회가 정착기에 접어든 1930년대 이후에는 이주와 정착 과정에 대해 노래한 작품들이 다수 창작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재만 조선인 시문학을 이주·정착 과정의 시적 형상화란 관점에서 몇 개의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시문학은 망명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형성된다. 때문에 항일 투쟁의식과 국권 회복을 전경화하여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작품들이 1920년대까지 주를 이루게 되며, 이후에도 이러한 반외세 저항 문학으로서의 성격은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시문학의 중요한 특성으로 자리 잡는다.

고향을 떠나 만주(동북3성)에 이주하게 된 유·이민의 삶을 본격적으로 재만 조선인 시문학에서 형상화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의 '국책 이민' 정책이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실시된 19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이다. 하지만 이전부터도 재만 조선인 시문학에서는 단속적으로 짐작처럼 아무렇게나 '이민열차에 실려 만주 등지로 떠나갔던 이농민들의 삶을 그 주요한 시적 현실로 수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이민들의 모습은 시 속에서 만주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희망, 쫓겨나온 고향에 대한 향수, 낯선 타향에서의 부적응과 현실적 고난에 대한 한탄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정착기에 접어든 재만 조선인의 생활사를 증언하는 시적 수용은 다양하게 드러난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 풍년을 맞았건만 세금 물고 밭 갠고 나니 빈털터리가 되어 길가에 나왔게 되었다는 농사꾼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잡초만 무성했던 황량한 만주 벌판을 피땀 흘려 옥토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중국인 지주에게 땅을 빼앗기고 다시 먼 북방으로 내몰리는 이주민의 이야기, 척박한 만주 땅에서 목숨을 가까스로 이어가는 동족을 허름한 초막에서조차 내쫓고 타살하기까지 하는 조선인 지주 이야기, '오족 협화'를 둘러싼 이념적 갈등 등 수많은 재만 조선인이 정착 과정에서 겪었던 비극적인 삶이 극적으로 변주되어 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광복 후 잔류를 선택하여 중국공산당의 토지

개혁에 기대를 가지고 중국조선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상에서 보듯,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시문학은 단순히 망명문학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아니라 한민족의 이주·정착의 과정을 담고 있는 문학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때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1930년대 중반 이후 재만 조선인 시단에 기존 한국문학사에서 누락되거나 소홀히 취급되었던 시인들이 다수 등장하여 동시기 재만 조선인의 이주·정착의 모습을 풍요롭게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동시대에 발표한 문학에 주목하여 그 의의를 온전히 평가해 줄 때 한국문학의 자장과 민족문학으로서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주제어 : 재만 조선인 시문학, 혁명가요, 실향의식, 이주, 정착, 향수, 방랑



< 참고 문헌 >

- 김조규(편), 『재만조선인시집』, 예문당, 1942.
- 박팔양(편), 『만주시인집』, 제일협화구력부문화부, 1942.
-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연구소(편), 『김조규시집』,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2.
- 『20세기 중국조선족문학사료전집』, 연변인민출판사, 2001.
- 오오무라 마스오/이상범(번역), 『(만선일보) 문학관계기사 색인(1939.12-1942.10)』
- 권철, 『광복 전 중국 조선민족문학 연구』 한국문화사, 1999.
- , 『중국조선족문학』(상, 하) 연변대학출판사, 2000.
- 권철·임범송(주필), 『조선족문학연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9.
- 권철·조성일(주편), 『중국조선족문학사』, 연변인민출판사, 1990.
- 김병민, 『신채호문학연구』, 아침, 1989.
- 김용식(편),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제2집, 리옥 문학편』, 중국조선족민족문화예술 출판사, 2002.
- 소재영(외), 『중국조선족 문학 연구』, 송실대 출판부, 1992.
- 오양호,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1988.
- , 『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문학연구』 문예출판사, 1996.
- 윤영천, 『한국의 유민시』, 실천문화사, 1987.
- 이상갑 외, 『재외한인작가연구』,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01.
- 임범송·권철(편), 『조선족문학연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9.
- 정덕준·노철, 『중국조선족 시문학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2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3.
- 조성일·권철, 『중국조선족문학사』, 연변인민출판사, 1990.
- 조성일·권철(외), 『중국조선족 문학 통사』, 이회문화사, 1997.
- 채훈, 『일제강점기 재중 한국문학 연구』, 깊은샘 1990.
-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 출판부, 1999.
- 황송문, 『중국조선족 시문학의 변화 양상 연구』, 『시문학』2002. 3-12.
- 현규환, 『한국유이민시』, 어문각, 1967.
- 현룡순, 『조선족 백년사화』, 요녕인민출판사, 1982.

{Abstract}

A Study of the Korean Immigrant Literature in Manchuria

Kim Jeonghun · Chung Dukjoon

Until now research mostly treated Chinese–Korean Literature on Manchuria as a literature in exile. This way don't reflect actuality of Manchuria unde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ecause, in this paper I divided the Chinese–Korean Poetry unde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to several classes with the viewpoint which is a encapsulated the history of their emigration and domiciliation.

First of all, it starts with a literature in exile before 1920s. The most works are foregrounding an anti–Japanese combative consciousness and the hope to a national right recovery. Kim Tack–young and Shin Jung and Shin Chae–ho are typical writer of this age. Even in after, literature that reject the foreign power like this placed a important quality of it.

The Chinese–Korean poetry until 1920s is not an particular different point from with interior poems as such poets in charge or to selected form. Only, in contents, it frequently appears strongly foregrounds anti–Japanese combative consciousness of interior literature. The poems after 1930s is individually show racial consciousness of different kind from poems of KAPF or nationalism at home. This is natural that the Manchuria when is because is a base of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It was started from 1930s that makes exile's life as emigrant to Manchuria with subject matter of the Chinese–Korean Poetry. This time when that it is a widely and systematic range executed plan as emigration

a national policy. It becomes literary encapsulated with the features which is various aspect with vague expectation and hope about Manchuria, homesick, maladjustment in alien and deploring actuality trouble.

An aspect of emigrated Korean to endured any kind of trials appears in diverse works on Manchuria. The Chinese-Korean literature in domiciliate step on Manchuria described settlement' conflict with Chinese landowner and their poverty and suffering because of the Japanese colony rule in China likewise in their homeland. The representative writers are Kim Jo-kyu, Lee Uk, etc. The poems from 1930 to 1940's described various lives of settlers : an anti-Japanese struggle, a will of settle, and escapism. The representative writers are Song Chul-ly, Chun Chun-song, Shim Yeon-su and so on.

It grasps the Chinese-Korean poetry unde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hen point of view with not a literature in exile but literature of the emigration and domiciliation. Many poets who had various works in this time was not referred almost from the history of literature on and after the middle of 1930s. Reasonable research of its works is urgent for just corroboration of Korean Poetry. Their works are plentifully putting in the features of immigration and fixation.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judge their poetry straightly.

The poetry of the glorious restoration is most rapture of regain of country and ovation of land reform. This works becomes the strong and steady base of the Chinese-Korean Poetry.

Key words : Korean Immigrant Literature, Chinese-Korean on Manchuria, Japanese Colonial Period, emigration and domiciliation, exile poem, revolution ballad

정 덕 준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번지
전자우편 : djchung@hallym.ac.kr
/nawoori21@naver.com

김 정 훈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번지
전자우편 : boriari@hanmail.net

K C I